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157-162,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157

<런닝맨>에서 나타난 유머스타일 유형 상관관계 분석

김준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Analysis on the Correlation of Humor Style Types Shown in <Running Man>

Joon Kim
Professor,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긍정적인 유머 스타일과 부정적 유머스타일이 어떻게 매개하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SBS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Martin 과 동료들이 개발한 유머스타일 질문지(Humor Style Questionnaire: HSQ)를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런닝맨> 멤버들의 유머스타일 유형을 분류한 후, 긍정적 유머스타일과 부정적 유머스타일은 유머생성에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 지와 멤버들 유머스타일은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런닝맨> 나타난 긍정적 유머스타일과 부정적 유머스타일 유형은 4대 4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나이와 경력, 그리고 권력에 따라 분류되었다. 유머생성 매개는 유머가 대립하는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유머스타일 상호 관련성은 반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유머, 유친성, 자기고양, 공격, 자기파괴

Abstract This thesis analyzed the intermediation and correlation of positive humor style and negative humor style through an entertainment program <Running Man> broadcasted on SBS.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Humor Style Questionnaire(HSQ) developed by Martin et al.,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methods, first, 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humor style of members of <Running Man>,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ositive humor style and negative humor style would intermediate the formation of humor, and also the correlation of humor style of members. The types of positive humor style and negative humor style shown in <Running Man> were balanced in 4:4, which was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age, career experience, and power. The mediation of humor formation occurred at the point where humors confronted. The humor style had the correlation with twist.

Key Words : Humor, Childishness, Self-Empowerment, Attack, Self-destruction

1. 서론

1.1 연구문제 및 방법

유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인 많은 측면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재미있는 대화내용이나 농담, 재담, 일화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의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 같은 유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유머는 우리에게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심각한 주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10]한다. 현대인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피곤하다. 불안하다. 힘들다 등이 많은 대화 주제로 등장하는 일상에서 생활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피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존재한

*Corresponding Author : Joon Kim(paper@policy.or.kr)
Received October 8, 2019
Revised October 31,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
Published November 28, 2019

다. 이 방법들의 궁극적 목적은 감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찾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웃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재미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위트 있는 이들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 유머는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두고 기대가치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성 속에서 공감 지향체로 존재하는 것[1]이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일상에서 자주 웃고, 농담을 하여 상대방을 재미있게 만들고 다른 이의 유머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적, 개인적, 이성적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즐거운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유머감각이 높은 이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삶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2]이 있다.

유머는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두고 기대가치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성 속에서 공감 지향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유머감각이 뛰어난 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유머로 인한 웃음은 삶의 치료제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머를 가지고 있는 대상과 언제나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기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의 하나는 유머가 있는 미디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중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매체이다.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코미디,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쇼, 서바이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 마다 독특하고 신선하게 그리고 개성 있는 유머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11]한다. 이렇게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런닝맨>은 2010.07.11부터 현재까지 일요일 오후 5시에 SBS에서 방영되고 있다.<런닝맨>은 개리의 자진 하차 이후로는 멤버 변화가 없고 멤버들 각자의 포지션에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불허 빅웃음!!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곳곳에 있는 미션을 해결하고, 끊임없는 질주와 긴박감 넘치는 대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랜드마크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전격 공개하는 것을 추구하는 프로그램[14]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송된 '<런닝맨>'은 평균 시청률 1부 5.5%, 2부 8.5%(이하 수도권 가구 시청률 기준)로 지난 1월 기록했던 8.1%(평균 시청률 2부 기준)를 뛰어넘으며 '2019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동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의 기록[15]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런닝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런닝맨> 멤버들의 유머스타일은 무엇인가? 둘째, 긍정적 유머스타일과 부정적 유머스타일은 유머생성에 어떻게 매개하는가? 셋째, 멤버들의 유머스타일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Martin 과 동료들이 개발한 유머스타일 질문지(Humor Style Questionnaire: HSQ)를 선택하였다. 이 측정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역,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유머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 분석틀이다. 이들은 유머를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유머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머스타일 분류는 유머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통하여 유머스타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바 이론적 분석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Martin은 사람들 사이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질들의 관계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유머를 다양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으며 유머는 대인관계에서 상호의사 소통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긴장완화의 대처기제로 작용하는 점에 주목[10]하였다. 그는 유머를 중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립적인 유머는 사용하는 이와 이를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유머스타일 질문지(Humor Style Questionnaire: HSQ)로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유머스타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2.1 유친성 유머(affiliative humor)

유친성 유머는 상대방을 유쾌하고 즐겁게 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형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온다. 유친성 유머를 즐기는 이들은 자발적으로 재치 있는 표현(spontaneous witty banter)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 타인에게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라도 자기 극복적인 성향을 보이며 타인을 편안하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에 관한 농담에서도 자신 비하보다는 자기 수용(self-acceptance)을 유지하여 고무적인 유머를 지키는 스타일[12]이다.

1.2.2 자기고양성 유머(self-enhancing humor)

자기고양성 유머는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이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상황에 대한 대처 유머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고양시키고, 조망수용능력으로서의 유머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인다. 정서의 조절 및 대처 기제로서의 유머에서 자신을 극복함으로서 인정받음으로 인해 자기고양성을 높이는 경향[13]이 있다.

1.2.3 공격적 유머(aggressive humor)

공격적 유머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유머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공격적 유머를 잘 쓰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냉소적인 발언이나 괴롭힘으로써 유머를 발생시키며 그로 인해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타인을 비꼬는 조소와 폄하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머를 사용[3]한다.

1.2.4 자기파괴적 유머(self-defeated humor)

자기파괴적 유머는 자기비하적이며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한 형이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멸시 하듯이 말하거나 조롱할 때조차도 같이 웃음으로써 이를 유머로 승화한다. 즉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권력이 위에 있는 경우는 아첨하는 유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유머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매우 재치 있고, 재미있지만 그들의 유머는 감정적 빈곤, 회피, 낮은 자존감이 내재[4]해 있으며 타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형이다.

2. 본론

2.1 <런닝맨> 멤버 유머스타일 분석

2.1.1 김종국

김종국은 “센 형”으로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을 지키는 캐릭터이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멋있고 강하게 표현한다. 그는 자기 조정 능력이 뛰어나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자신의 적절한 행위 판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는 상대방의 행위나 반응에 주위를 기울이지만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행동에 일관성을 보이고 싶어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멤버들이 종국이 형은 무엇을 선택했을 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멤버들 사이에 뛰어난 능력자로 인식된다. 이렇게 높은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5]는 기대치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김종국은 자신의 매력을 항상 부각시키는 자기고양성 유머스타일의 캐릭터(self-enhancing humor)이다.

2.1.2 송지효

송지효는 <런닝맨> 멤버 중 에이스로 운이 좋은 금손 캐릭터이다. 하지만 그녀는 멍지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듯이 <런닝맨> 방송에 많은 멘트를 하는 것보다 멍하게 있다가 어쩌다 한 행동과 멘트가 유머로 작용하는 형이다. 다른 멤버들이 편안하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금손이라는 별명처럼 그녀와 함께하면 운이 좋을 거라는 인식이 있다. 그녀는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운에 스스로도 놀라워한다. 그러므로 송지효는 멤버관계에 편안함을 주며 좋은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유친성 유머스타일(affiliative humor)이다.

2.1.3 양세찬

양세찬은 쌥쌥이, 얌생이 등으로 불리는 별명에서 나타나듯이 돌발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빠르게 행동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다른 멤버들에게서 게스트와 비교당하면서 조롱과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멤버들에게 호의적인 또는 아첨하는 멘트를 많이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결정하기보다는“부려먹기 좋은 지효 어때요”등과 같은 멘트로 동조를 얻어내고자 한다. 그는 다른 멤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좋은 인상을 만들고자 시도한다. 그러므로 양세찬은 자기파괴적 유머(self-defeated humor)스타일이다.

2.1.4 유재석

유재석은 전체 멤버들과 게스트 소개부터 프로그램 진행을 이끌어가는 캐릭터이다. 그는 게스트 소개를 특정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유쾌하게 칭찬을 하면서 게스트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게스트의 특징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혹은 이슈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멘트를 함으로써 게스트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진행은 멤버들에게 다양한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 또한 그는 멤버들의 소식을 전하고 추궁함으로써 돌발 상황을 만들어 다양한 사건으로 연결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자신의 행위적 또는 인지적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유머에 접근하는 셀프리더십적[6]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므로 유재석은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멤버들 대인관계 긴장완화와 재미있는 농담과 재치있는 공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친성 유머스타일(affiliative humor)이다.

2.1.5 이광수

이광수는 "꽝손"으로 불운의 상징인 캐릭터이다. 그는 다른 멤버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는 형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한 거야", "내가 잘 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였구나" 등의 자기 비하 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잘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생각, 정서[7]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그에게 "광수 정신 차려!", "쥐치, 너랑 비슷하잖아", "거짓말 하지 마"등등 멸시와 조롱을 하지만, 그는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자기희생 행동을 보인다. 게다가 그는 항상 팀원들이 자기를 버릴까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낮은 자존감마저 보인다. 그러므로 그는 지나친 자기비하와 희생,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유머를 만들어내는 자기파괴적 유머(self-defeated humor)스타일이다.

2.1.6 전소민

전소민은 게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지석진과 함께 최약체로 불려진다. 그녀는 엉뚱한 멘트와 행동으로 유머를 표현하고 재치 있는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녀는 멋진 남자 게스트가 등장하면 과장된 리액션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멤버들에게 난봉꾼으로 불리면서도 항상 러브라인을 모색한다. 자신의 러브라인 즉 멋진 게스트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공격을 받지만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소민은 유친성 유머(affiliative humor)스타일과 자기파괴적 유머(self-defeated humor)가 함께 나타난다.

2.1.7 지석진

지석진은 최연장자이며 최약체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에 대한 애착형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방송분량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인기도와 유명세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측면이 부각되는 스타일은 자기 관리적 자아[8]가 높은 유형이다. 오늘의 게스트가 그를 아는 척하면 그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행동과 멘트를 한다. 그는 상대가 묻지도 않는데 자신 혼자서 제시하는 자기부각은 멤버들의 야유를 부르게 만들고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행동과 멘트를 하면서 멤버들에게 야유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최약체로 멤버들이 같은 팀에 합류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팀에서 방출하려고 하는 캐릭터이다. 그러므로 지석진은 자기고양성 유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2.1.8 하하

하하는 멤버들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한다. 그는 광수에게 DJ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더러운 자식"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기도하고 김종국에게 "우리가 그랬어 봐"라며 깐족거리며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소한다. 이러한 비판적사고성향(critical thinking)은 멤버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9]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하지만 항상 김종국 편에 서길 바라는 행동을 하며 스스로 김종국의 팔걸이가 되어도 내가 기분 안 나쁘면 괜찮다는 모습을 보인다. 돌발 상황에서는 "당분간 여기서 살게", "맞는 거네(구타)"등 자포자기성 발언을 한다. 그리고 그는 "너보다는 내가 낫네",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자신이 이기는 것으로 타인을 비하하면서 자신을 고양시키는 행동과 멘트를 구사한다. 그러므로 하하는 공격적 유머(aggressive humor)스타일이다.

2.2 긍정적, 부정적 유머스타일의 유머생성

2.2.1 긍정적 유머스타일 유머생성

<런닝맨>에서 유친성 유머스타일이 높은 멤버는 유재석으로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재미있는 농담과 재치있는 위트를 가진 스타일 이었고, 송지효는 금손의 이미지로 자기수용을 유지하는 스타일로 이러한 성향이 나타났다. 자기 고양성이 높은 멤버는 김종국으로 체력적으로 최강자임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모든 멤버들이 인정하는 스타일로 나타났으나, 지석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양시키는 측면이 강한 스타일로 멤버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야유의 대상으로 이런 성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런닝맨> 진행에서 미션을 수행할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게임에서 행운을 얻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2.2.2 부정적 유머스타일 유머생성

<런닝맨>에서 공격적 유머스타일이 높은 멤버는 하하

로 항상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꼬는 역할을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양세찬은 그의 옆에서 같이 합류하는 스타일로 이 성향을 보였다. 자기 파괴적 유머 스타일이 높은 멤버는 이광수로 항상 "팡손"이라는 별명과 함께 "나는 안 돼"라는 자기 파괴적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세찬은 다른 멤버들이 유난히 외모와 스타일에 대한 조롱에 웃음으로 넘기는 성향으로 나타났고, 전소민은 이따금 하는 엉뚱한 행동과 남자 게스트와의 러브라인에 관해서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형태로 이 성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런닝맨> 진행에서 미션을 수행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게임에서 불운을 얻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2.3 유머스타일과 멤버들의 상호관련성

<런닝맨> 멤버들의 관계들 속에서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체력적으로 최강자인 김종국과 나이가 가장 많은 지석진은 긍정적인 유머인 자기고양성 유머스타일에 속해 있고, 그 반대인 자기 파괴적 유머스타일에는 나이가 가장 적은 양세찬과 전소민과 이광수가 속해있다. 이런 측면에서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지석진(1966년생), 유재석(1972년생), 김종국(1976년생), 송지효(1981년생)은 긍정적인 유머스타일에 포함되었고, 하하(1979년생), 이광수(1985년생), 양세찬(1986년생),전소민(1986년생)은 부정적 유머스타일에 포함되었다. <런닝맨>은 게임에서 벌칙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은 이길 수 있는 멤버와 같은 팀으로 합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멤버들은 같이 합류해서 게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멤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멤버는 긍정적인 유머스타일 스타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유머스타일의 멤버들은 반칙과 아첨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유머스타일 멤버와 같은 팀에 합류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진행에서 이기는 팀에서는 긍정적인 유머스타일이 많이 나타났으며, 지는 팀에서는 부정적인 유머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게임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기는 팀에 있는 부정적인 유머스타일 멤버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는 팀에서는 긍정적인 유머스타일 멤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런닝맨>에서 나타난 유머스타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런닝맨> 멤버들의 유머스타일은 나이와 경력, 그리고 권력에 따라서 긍정적인 스타일과 부정적인 유머스타일로 분류 되었다. 긍정적인 유머스타일이 높게 나타난 멤버는 유재석와 김종국이었고, 이 두 명보다는 약하지만 송지효와 지석진도 긍정적인 유머스타일이었다. 부정적인 유머스타일이 높게 나타난 멤버는 하하와 이광수였고 이 두 명보다는 약하지만 양세찬과 전소민도 부정적인 유머스타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 유머 스타일과 부정적 유머스타일의 매개성, 즉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은 게임 진행에서 나타났다. 이기는 팀에서 부정적 유머스타일 멤버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는 팀에서 긍정적인 유머스타일 멤버는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로 매개성이 나타났다. 셋째, 멤버들에서 나타난 유머스타일 상호관련성은 체력적으로 우월하거나 상식이나 지식이 높은 멤버에 대한 권력관계에서 나타났다. <런닝맨>에서 같은 팀에 속하는 것은 게임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주로 권력관계에 상위에 속해 있는 것은 긍정적인 유머스타일의 멤버였으며, 이들과 같은 팀을 이루고자하는 멤버들은 주로 부정적 유머스타일 멤버였다. 또한 유친성 유머와 공격적 유머, 그리고 자기 고양적 유머와 자기 파괴적 유머는 서로 반대적 위치에서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유머가 생성되었다. 그러므로 <런닝맨>에서 나타난 유머스타일은 긍정적 유머스타일과 부정적 유머스타일이 멤버가 비슷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형태로 많은 유머가 생성되었으며, 이 멤버들이 같은 팀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지점에서 부정적 유머와 긍정적 유머 스타일의 멤버는 반전으로 긴장과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C. H. Kim. (2018). Study on the Components of Social Media Users' Value Expec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2),* 579-591.
DOI :10.14400/JDC.2018.16.12.579

[2] Fry, P. S. (1995). Perfectionism, humor, and optimism as moderators of health outcomes and determinants of coping styles of women executives. *Genet Soc Gen Psychol Monogr, 121(45),* 211-245.

[3] Zillmann, D. (1983). Disparagement humor. In Handbook of humor research. *Springer New York,* 85-107.
DOI :10.1007/978-1-4612-5572-7_5

[4] Michael S. Fabrizi & Howard R. Pollio. (1987). A naturalistic study of humorous activity in a third, seventh, and eleventh grade classroom. *Merrill-Palmer Quarterly, 33(1),* 107-128.

[5] J. H. Han (2017).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Burnou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211-219. DOI :10.14400/JDC.2017.15.10.211

[6] S. M. Baek & H. S. Yan. (2017).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lf Leadership on Job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111-123. DOI :10.14400/JDC.2017.15.9.111

[7] J. H. Lee & C. N. Son. (2015). Relationship of Avoid Fusion and concentration : Focused on mediative effects of emotion control and thinking contr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2),* 433-440. DOI :10.14400/JDC.2015.13.12.433

[8] J. Y. Kim. (2017). The Impact of Personality and Self-Identity on Online Information Acquisition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SNS Us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433-440. DOI :10.14400/JDC.2017.15.11.433

[9] H. W. Kwak. (2018).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Frustration Tolera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233-242. DOI :10.14400/JDC.2018.16.8.233

[10] R. A. Martin. (2008). Humor psychology Seoul: PAKHAKSA

[11] S. Jeong. (2015). Entertainment Content Storytelling, Seoul : CommunicationBooks.

[12] Valliant, G.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13] Zachary M. Kasow. (2012). Predicting Quality of Life Based on Humor Style.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San Luis Obispo. DOI:10.15368/theses.2012.53

[14] SBS. (2010). RunningMan. https://programs.sbs.co.kr/enter/runningman/about/52883

[15] C. H. Song. (2019). 'Running Man' recorded the highest viewer rating this year with 8.5%! No. 1 entertainment viewership at the same time. Sports Donga. http://sports.donga.com/3/all/20190318/94605465/1

김 준(Joon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09년 2월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마케팅, 인사조직
· E-Mail : sulsong3@hanmail.net